

해외의약뉴스

약사가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

개요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방문상담(Use Kitchen Table Consults), 약국업무흐름의 개선(Improve Pharmacy Work Flow), 환자의 복용약물 단순화(Simplify Patients' Medications), 복약비순응에 대한 이유 확인(Identify Reasons for Medication Nonadherence), 환자의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Ask Patients Specific Questions About Their Medication)의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약사, 복약순응도

1. 가정방문상담(Use Kitchen Table Consults)

약사는 가정방문상담(kitchen table consults)과 같은 약물치료관리(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복약이행을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다. 실례로, Christy Whitlock 약사¹⁾는 약물치료에 있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병원과 제휴하고 있다. 즉, 환자의 집에 상담약사(medication coaches: pharmacists and pharmacy technicians)를 파견하고, 그곳에서 환자의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약물복용이행을 위한 최상의 방법에 대해 환자와 대화한다.

2. 약국업무흐름의 개선(Improve Pharmacy Work Flow)

처방조제, 보험, 의사와의 소통, 환자서비스 업무 등 혼돈의 장소에서 업무흐름을 좀 더 균형적이고 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Donald Grove 약사²⁾는 'SmartFlow Pharmacy Workflow System'의 제안자이다. 실례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험해결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별도 바구니를 포함, 우선순위에 따른 “컬러로 코드화된 처방전바스켓(color-coded prescription baskets)을 사용한다.

임상약사가 복약상담과 MTM과 같은 환자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반면, 조제약사는 처방전 검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로지 검토와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 약사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카운터를 비우는 시간이 생기도록 하며, 약사들이 시간이 없는 경우 MTM 서비스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직원의 시간을 존중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직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직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3. 환자의 복용약물 단순화(Simplify Patients' Medications)

미국 지역약사협회(The 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 NCPA)는 환자의 복약순응을 위해 “Simplify My Meds”라는 프로그램을 회원약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사들

1) registered pharmacist(RPh), founding partner of Winyah Home Rx, LLC

2) a proponent of the SmartFlow Pharmacy Workflow System

이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는 약물을 매월 같은 날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물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Simplify My Meds” 프로그램에는 매뉴얼, 교육자료, 마케팅 자료의 스타터 키트가 포함되어 있다.

4. 복용비순응에 대한 이유 확인(Identify Reasons for Medication Nonadherence)

Elizabeth Whalley Buono³⁾는 복용비순응을 바로잡을 통용되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 처방리 필제는 일부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한 약물 복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기에 약복용을 중지하거나, 중간에 복용을 쉬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Buono는 복용비순응의 핵심은 환자 개인의 복용비순응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혁신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복용비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환자의 “health care ecosystem”을 연관시키는 것, 복용비순응을 위해 건강망과 같은 주요요인을 알려주는 것, 피드백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Buono는 또한 복용비순응의 문제는 팀(team)(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으로 해결해야만 하며, 간병인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환자의 복용비순응이 단순한 중재 또는 개입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다양한, 다면적인, 다중시스템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5. 환자의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Ask Patients Specific Questions About Their Medication)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비순응도를 파악하는 두 가지 질문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어떻게 아는가?”이다.

미주리 대학교 연구소는 6,656명의 심부전 환자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복용비순응에 대한 29가지 접근법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로 보건의료인은 복용비순응에 대한 환자 교육보다 환자의 행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약사의 또 다른 질문은 “약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약사가 해결책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주저자인 Todd Ruppert 박사⁴⁾는 약사가 필박스(pillbox)⁵⁾의 사용 또는 알리미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환자로 하여금 약사를 약물정보제공자로서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자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 원문정보 ■

<http://www.pharmacytimes.com/news/5-ways-pharmacists-can-improve-medication-adherence/>

P-1

3) 간호학사(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 공인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경영학 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로스쿨 3년과정(Juris Doctor, JD)

4) lead study author, 공인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5) 미국 의약품 검색 서비스 제공